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출판의 역할 고민하자”

진성민 | '다른세상' 대표

환경문제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의 자연훼손과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판계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한 방안들을 책의 형태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실정인데, 선진국과는 달리 환경인식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기초환경도서부터 충실히 펴내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서구적 자연관은 자연을 필요한 것을 얻는 획득의 대상으로만 여겼기에 그 누구도 자연훼손, 자연파괴, 자연보존, 자연보호라는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다 계급주의적 침략행위와 산업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획득의 개념에서 공존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인식하게 됐다. 말하자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 환경보전과 보호의 개념들이 생겨난 것이다.

### 출판계도 환경재앙 문제에 눈 돌려

이제 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서,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아직 공존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교육·동참할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꾸준한 환경교육과 다양한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과 환경보존 인식의 확산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존·보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환경고발·감시·단속의 '네거티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세부적 개념을 확립하고, 환경재앙과 자연고갈을 막아 인간이라는 종족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들 가운데 하나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환경지속지수(ESI)다. 우리나라는 올해 122개국 가운데 95위에 머물렀다.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95

위가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시화호가 불러온 환경재앙, 가창오리 2만 마리의 집단폐사...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니 환경에 대한 학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호나 선전성 행사 등으로는 근본적인 의식전환에 이르지 못한다. 출판계에서 환경이 테마로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출판계에서도 이런 인식과 환경보호를 위한 도서들이 발간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상태다.

얼마 전 한 출판기자의 글에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도서들은 외서에 비해 매우 질이 낮다는 식의 표현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자연·환경도서 출판국은 영국이다. 그들은 이미 몇 세기 동안 박물관이라는 범주 속에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했기에 그 자료를 이용해 더 나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생산하고 있다.

### 기초 환경도서부터 차근차근 펴내야

우리는 이제 몇 십 년의 자료가 모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환경과 산업배경이 우리와 다른 외국 책만 읽을 수는 없다. 국내 저작물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과 같이 환경도서가 발달한 나라와의 격차는 인정하되, 우리나라 자연과 환경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환경문제를 접하는 것은 환경재앙이나 환경피해의 보도, 매우 피상적 나열에 그치는 TV 다큐멘터리로, 이 또한 흥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여러 출판사가 자연·환경에 관련된 도서를 출간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자의 내용을 도용해 짜깁기식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이상 연구해 한권의 책을 발간한 저자도 신문 문화면의 도서소개란에서 박수와 격려보다는 홀대를 받고 있다.

서두에서도 환경이 화두라 말했듯 출판계에서도 하나의 화두임은 분명하다. '화두를 붙잡고'라고 방송에서 매번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에서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배경과 정보가 필요하고, 여기에 책의 쓰임새가 있다. 환경인식의 한 축을 출판이 짊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책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출판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으로는 환경도서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이는 열매를 따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무를 가꿔 열매를 맺게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환경의식, 생명존중의식을 갖게 하는 기초 환경도서부터 차근차근 일궈나갈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환경이란 주제가 출판계에서 21세기 키워드, 화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다.●